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 景 太
印 刷 人 金 政 坤
編輯局長 裵 永 斗

發 行 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협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 長 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967-4984
☎965-9551

한국藥用作物학회주최 제1차연구발표회개최

후원 : 한국생약협회

4半世紀 경윤을 쌓아온 생약協會도 이제 周邊余件의 애매모호한 觀心으로 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 약용작물 생산 시책강의(잠특과 김상범계장과 회원)

次元높은 研究資料 補給으로

生藥材의 國際경쟁력 向上에 기여

◇ 이정일회장

○88年부터 農林水産部의 적극적인 복합영농지원시책으로 연유된 5대 生藥分野자금(①생약생산자금 ②육묘포시설자금 ③건조장 시설자금 ④생약造製시설자금 ⑤생약수매자금)의 축차적 增大와 전국 주산단지 공고, 농촌진흥청의 藥用作物課 신설로 인한 업무추진 체제 발전, 보사부및 의수협의 협조체제 증진등 주변여건의 관심고조와 지원이 증폭되고 있는 時點에서 금번 전남 나주 농촌진흥원에서 9월18일개최된 전국규모의 한국약용작물학회 주최 제1차 정기총회및 약용작물 발표회를 후원입장에서 기간요원 다수가 참여하게 되었으니 협회로서는 이와같은 관련기관의 증설을 환영하면서 앞으로의 발전에 기대하는바 크다고 하겠다.

이날 발표회에는 국내 농업분야 저명인사 2백36명과 신규가입자 2백34명등 4백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28개 과제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함으로서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 약용작물학회는 현직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장이신 이정일박사를 초대회장으로 하여 총무이사에 현직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장 성낙술 박사, 감사에 현직 서울대 천연물 과학연구소장 지형준박사 등 국내 관계, 학계, 기업계 등의 저명인사 2백36명으로 구성하여 제1차 정기총회를 갖인바 있으며 당일로 2백30여명의 회원이 신규가입하므로서 회세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회의 벽두에서 이정일 회장은 그의 인사말에서 현재 농림수산부의 약용작물 25개 주산단지 지정고시와 농촌진흥청의 약용작물과의 신설, 각 시도의 농촌진흥원의 연구 담당분야 설치등 직접적인 관련체제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약용작물의 위치와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좌이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분, 제품등 질적면에서의 학술적 연구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인정 1년전에 약용작물연구회를 발족시킨바 있으나 좀더 가까이 근접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금번 한국약용작물학회를 구성완료하고 오늘 제1차 정기총회겸 학술연구발표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위축되어가는 생약재배 농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고 외국산 수입물량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은 약용작물에 관한 차원 높은 연구자료를 공급하도록 힘을 결집해 나가자고 力說하였다.

과제발표회에 들어가 농림수산부잡특과 김상범사무관은 그동안의 약용작물생산 시책을 소개하면서 약용작물중에서 우선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농가소득을 정착시킴과 아울러 질좋은 생약을 공급하여 국민보건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상품성제고에 노력하면서 복잡한 유통단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生産者와 消費者의 不利益을 해소 시킬수 있는 方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시책으로서 25개 주산단지소개와 기준면적, 생약분야자금 지원현황, 품목별 재배자금 지원기간등에 대하여 소상한 부가설명을 하므로서 동 발표회의 의의를 더욱 높인바 있다.

※다음에 주요 연구발표과제를 소개하오니 앞으로의 본회 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람.

생물공학 및 품질분야

○할미꽃(Pulsatilla koreana) 엽조직에서의 Calius 유기 및 식물체 재분화

○부자(Aconitum carmichaeli) 백아배양과 Calius로 부터의 식물체 재분화

○마(Dioscorea batatas) 종근생산을 위한 영양체 기내배양에서의 배지 및 생장조정제의 효과

○탄소원과 질소원의 비율이 박하(Mentha piperita) 정유성분에 미치는 영향

○시호(Bupleurum falcatum) 배양세포로 부터 식물체 생산과 이용

○재배지모의 부위별 Sapogenin) 함량에 관한 연구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의 엽조직 배양에 의한 식물체 재분화 및 Callus의 TLC 확인

○약용작물(작약·시호)의 조직배양에 관한 연구

○국내 재래종 시호와 일본 삼도시호의 Saikosaponin 비교 분석

○재배종 당귀(Angelica gigas)의 품질에 관한 연구 제1보. 재배지역과 기상요인에 의한 Decursin 함량변이

○반하(Pinellia ternata)의 기내 NMU처리에 의한 돌연변이체 선발

○달맞이 수질종의 형태적 특성과 지방산 함량

○계피, 육계, 계지의 엑스 수율 및 Cinnamic acid, Cinnamaldehyde, Eugenol 함량

올해 쌀생산량 7년간평년작웃돌아

올해 쌀생산량은 평년작을 넘어선 3천6백57만석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전국 1만5천개 표본지역을 대상으로 포기당 이삭수와 이삭당 낟알수를 실측조사한 결과 올해 쌀생산량은 최근 7년간의 평년작(3천5백77만석) 수준을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올해 수확예상량은 지난해의 수확량 3천7백36만석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이는 통일벼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4만8천ha가 줄어들었고 일반벼의 재배면적도 지난해의 1백20만7천ha보다 5만1천ha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이처럼 줄어들었으나 1㎡당 벼포기수는 22·7포기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생약재 섞어 「자생불로초」 판매 의약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재배농민 환영

생약재를 섞어 「자생불로초」를 만들어 팔다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던 업자에게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형사 1부(주심 이회창)는 지난 14일 인삼판매업자인 김 학명피고인(충남고산)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사건상고심에서 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제조행위란 약전에 기록된 약품이나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해 변형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김피고인은 이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무허가로 약품을 만들어 팔았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피고인은 녹각 천궁 숙지황 등 십전대보탕의 원료 10가지를 포함 총 24가지의 한약재를 섞어 「자생불로초」를 만든뒤 이를 지난 89년 7월부터 90년 3월까지 시중에 팔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생약재의 선별 포장 그리고 간단한 정선조차 힘들게 했던 법조항을 재해석한 것으로 생약재 재배농가들로 부터 환영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각종 생약재를 섞어 지역특산품을 만들 경우 이를 의약품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생약재 재배농가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을 트게 됐다. 관련 농가들은 그동안 보사부의 단속과 엄격한 법적용을 주장하는 의료단체의 목소리에 눌려 생약재를 제대로 선별조차 하지 못한채 헐값에 팔아왔다.

이와는 달리 값싸고 저질품인 중국산이 지역특산품이라는 이름을 빌어 대량유통되고 있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이를 부채질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또 이들 생약재의 부작용을 내세워 각종 규제를 했던 의료단체들의 반발로 또다른 행정조치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사부나 농림수산부들 관계당국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농가부가가치 증대와 국민건강 그리고 중국산의 유사품 근절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농어민 신문 9·23일자에서 발췌)